

楠門學과 李退溪**

— 闇齋의 학문과 退溪의 道 —

岡田武彦*

일본의 幕府末期維新에 철학사 내지는 사상사 상으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輕忽하게 취급되어온 일련의 陽明學者, 朱子學者가 있었다. 그것은 備中の 山田方谷, 安藝의 吉村秋陽, 讃岐의 林良齋, 京都의 春日潛菴, 但馬의 池田草菴, 岩國의 惠澤瀉 등의 陽明學者와 平戶의 楠本端山·碩水 형제 등의 朱子學者들이다. 이들 儒者는 佐藤一齊 또는 大鹽中齋의 문인이거나, 아니면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儒者며, 서로 친교를 맺고 함께 학문에 精勵했지만, 그들은 宋朝 말기부터 清朝 초기에 이르는 朱子學者, 陸王學者, 특히 朱子學을 거친 명말 청초의 新王學者, 陸王學을 거친 명말 清初의 新朱子學자의 眞切한 體認의 學을 받아들이고, 당시의 내외 騷然한 세상 중에서 심각한 體認의 학에 노력하여 그것이 時世를 인도하는 진정한 학문이라는 자각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 게재한 幕府 말기 유신의 新宋王學者 중의 몇 사람은, 體認이 眞切深密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一齋나 中齋를 능가하는 점이 있었던 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이 점에서는 朱子學과 양명학의 구별은 불문에 부치고, 그들의 학은 모두 조선에서 제일인 李退溪의 朱子學과 많은 점에서 상통하는 곳이 있다 해도 좋을 것이다.

퇴계는, 『朱子書節要』 20권을 편집하고, 朱子の 서간 중에서 要處라

* 九州대 명예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36호(1982) 게재논문

고 여겨지는 곳을 摘長해서 때때로 주석을 붙인 것은 주지하는 바이나, 그럴즈음, 사람을 구속 切躋시키는 따위의 訓戒責勵의 어구만을 수록하는 것을 피하고, 예컨대, 朱子가 呂伯恭에게 보낸 서간 중의 「數日來蟬聲益清. 每聽之未嘗不懷高風也.」라고 한 어구를 채용하고, 이 選을 무의미하다고 한 데 대하여 「大抵人之所見不同, 所好亦異. 混平日極愛此等處, 每夏月綠樹交陰蟬聲滿身, 心未嘗不懷仰兩先生風, 亦如庭草一閑物, 每見之輒思濂溪一般意思也.」라고 말한 바와 같이¹⁾ 訓警과 관계가 없을지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寬展樂易, 願慕興起시키는 의사를 가지도록 하는 것도 또한 많이 채용하고 大賢이 常時의 言動游息時에 인간이나 사물과 응대할 때의 與緒情味の 상태를 연모시켜서, 그 聲歌에 접하도록 하며, 義刑을 보고 부지불식 중에 悟悅欣適의 뜻을 가지도록 하고, 옛 성인의 도를 혼모하고 끊임없이 도를 향하여 그치지 않는 심정을 유발시키려고 하였다.²⁾

이로써 퇴계학풍의 淸高함과 滋味를 推案할 수 있는 것이다. 草菴은 陽明學者이긴 했지만 『朱子書節要』를 절찬하고, 「凡讀前人之集, 將欲知其人品學術經論之藎, 則莫先讀其書. 書則師友門生難疑答問所有, 而其言不飾, 真情發露非復他文之比也. 是故讀之者, 猶接其人而承其警效也. 夫晦翁孔孟以後之大宗師. 復之慕其學者, 當先讀其書, 而其書浩瀚荒渺, 輒難頌略. 今退溪此編, 乃節取其要以便覽覺. 今頃涉獵一次, 宛如親奉杖履相從於雲谷隱屏之間. 昏情之氣, 一時爲之警醒. 明治九年十月六日緝識,」³⁾라고 말하고 있다. 草菴은 진작부터 문하생에게 朱子어류, 문집을 읽히고 있었으나, 廣博 때문에 퇴계의 절요를 입수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文語類纂』을 읽히고 있었던 것 같다.⁴⁾ 草菴이 절요를 입수하여, 이것을 애독한 것은

1) 朱子書節要跋(楠本正繼先生書『中國哲學研究』634면 인용).

2) 李退溪書抄 권3, 答南時甫(日本刻版李退溪全集上, 64~65면 참조).

3) 靑谿書院全集(제2편, 하, 草菴讀文, 48면).

4) 楠本碩水 앞으로 보낸 池田草菴書簡(明德出版社刊, 朱子學大系 권14, 幕末維新朱子學者書簡集, 322면).

만년의 일이다. 다만, 퇴계의 『自省錄』은 소년시절 한번 본 적이 있는 듯 하며, 楠本碩水 앞으로 보낸 서간 중에서

「퇴계는 대단히 기색이 좋은 학자로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自省錄 餘抄도 소년시절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보지 못했고, 마침 수중에 同書를 갖지 못했습니다. 全書는 없을지라도 무방합니다만 당시에는 갖지 못했습니다.»⁵⁾

라고 기술하고 있다. 草菴이 퇴계에게 관심을 쏟게 된 것은 퇴계를 절찬한 碩水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碩水가 『自省錄』이나 『퇴계서초』를 草菴에게 추천한 다음 서간문에 의해서 알 수 있다.

「근일에 李退溪의 自省錄, 퇴계서초 등을 읽어 내려가 본즉 흥미진진하였습니다. 미나리를 먹은 美味를 감히 獻呈합니다.»⁶⁾

당시 草菴, 碩水 등과 교제가 있었던 양명학자인 惠澤瀉도 퇴계의 학을 경모한 것으로 보이며 碩水 앞으로 보낸 서간 중에는, 근년 조선에서는 퇴계의 遺風이 땅에 떨어진 것을 개탄한 文面이 보인다. 즉

「朝鮮辦理公使에게 竹添氏(井井)가 그 나라의 情狀을 문의한 즉 참으로, 뜻밖의 어지러운 세상이라, 李退溪의 유풍이 지상에서 불식되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⁷⁾

澤瀉는 陽明學을 주종으로 하고, 그나마 더욱 直悟를 좋아하는 듯싶었으나, 草菴은 당시, 陽明學의 蘊奧를 계발하여 마음의 存主인 意를 근본으로 하는 誠意說을 제창하고, 그것의 연구로서 엄격한 반성적 慎

5) 同, 257면.

6) 池國草菴 앞으로 보낸 楠本碩水書簡(同212면).

7) 楠本碩水 앞으로 보낸 東澤瀉書簡(明德出版社刊陽明學大系 권11, 幕末維新陽明學者書簡集, 367면).

獨을 요체로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朱子學 末流의 支離, 王門의 猖狂이라는 두 폐단을 구하는 데 공로가 있는 明朝末의 大儒, 劉會台의 학문을 신봉하여, 오로지 慎獨을 說하고, 默坐, 澄心을 근본으로 삼아 諸欲의 掃除를 하고, 그것에 의하여 멋진 경지에 이르도록 희구하고 있었다. 그의 深密한 自省은 퇴계학과 상통하는 바가 있었다. 草菴은 慎獨의 학문에 의해서 비로서 朱王은 합일이 된다고 말하고, 慎獨을 程朱의 居敬과 같은 취지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楠本端山, 碩水, 즉 楠門이 순수하게 朱子學을 고수하고, 그러한 점에서 陸王에 비판적이었음을 불만해 했다. 楠門學은 主情 存養을 요체로 하지만 그것은 朱子의 소위, 居敬窮理를 꿰뚫는 것이 되기 때문에, 草菴의 慎獨 單舉가 공리를 소홀히 하여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지적하고 陸王과 程朱는 그 구별을 확실히 해 놓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 草菴은 朱子에게는 다소 비판적이었으나 朱王合一 調停의 견해를 가지며, 楠門 쪽은 朱子學의 공리의 요체를 설명하여 그 설을 잘못된 것이라 하여 육왕을 비판했다. 예컨대 草菴은 碩水 앞으로 보낸 서간 중에서,

「拙著는 程朱之學이 서로 부합치 않는다고 생각지는 않으나 그 存寄大學中庸을 위시하여 其說을 그대로 준수하라 말할 수는 없고 따라서 필연코 불만족하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추찰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慎獨과 持敬과 存心, 養性의 경우에 이른 것은 異論이 없고, 그렇게 되면 前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⁸⁾

라고 말하고, 端產은 草菴 앞으로 보낸 서간 중에서,

「其要在慎獨이라 말함은 지극히 당연지사올시다. 然이나 此義는 전부터 천하의 진리에 있어서 太極의 전체를 명백히 투철한 것이라고 寸毫의 의심도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으므로 혹자는 認賊爲子の 오류를 범하지나 않을까 또한 염려되는 바입니다.」⁹⁾

8) 幕末維新朱子學者書簡集, 279면.

9) 同, 63~64면.

라고 말하였다. 천하의 道現, 태극의 전체에 투철하는 것이 端山이 말하는 궁리의 究極이며 거경 존양, 혹은 主靜 함양은 이 궁리의 근본을 세우는 공부였다. 端山에 의하면, 이와 같은 궁리를 취지로 삼지 않으면 설혹 切至한 존양에 임할지라도 결국은 賊을 인정하면서 子로 삼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端山은 용케도 朱子學의 근본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碩水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楠門의 朱子學의 본령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퇴계의 朱子學의 본령이기도 했다는 것은, 퇴계의 다음 말이 이것을 잘 명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延平默坐澄心體認天理之說，最關於學者讀書窮理之法。」¹⁰⁾

「不言窮理而徒守數字，學陷於一偏。」¹¹⁾

「所謂語類輯集之類皆不取，乃厭窮理之煩而欲徑趨簡捷，此尤可憂之大者。」¹²⁾

다만 草菴도 궁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구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마음에 용화되어 자득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구한 것이며, 그 때문에 전기한 바와 같은 慎獨 主靜 存養의 공부를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서 이것을 중시한 것이었으나, 楠門學의 경우는 이것에 상대해서 말하자면, 窮理에 중점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 또한 朱子學의 면목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리라. 다만, 오로지 涵養의 공부에만 전념한다면, 致良之說을 창도한 양명의 簡捷에 빠질 염려가 없지 않다. 퇴계나 楠門은 이것을 염려하여 궁리를 點出해낸 것이다. 草菴의 存養은 사람에 접하고 사물에 대함에 있어서 곧잘 명리의 상념을 克去하며 혹은 圖畫를 보고 酒脫의 심경을 양성하

10) 李子粹語 권2(退溪全集 5, 255면).

11) 退溪書抄 권8, 金而精問答(退溪全集 下, 167면).

12) 奇明彦問答(同, 권4, 同 87면).

는 것이었으나, 그 존양의 학은 참으로 퇴계학과 風韻을 같이하는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퇴계는 공리가 매우 幽深 玄妙하게 퍼지고 力行이 矜持 긴급에 빠지는 것을 면할 수 없어서 그 때문에 強探 助長의 病根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여

「第一須先將世間窮通得失榮辱利害一切置之度外，不以累於靈臺，既辨得此心，則所患蓋已五七分休歇矣。如是而凡日用之間，少酬酢節嗜慾，虛閑恬愉以消遣。至如圖畫花草之玩，溪山魚鳥之樂，苟可以娛意適情者，不厭其常接，使心氣常存順境中，無拂亂以生嗔恚，是爲要法。」

라고 말하고 학문에 있어서의 자득, 一切 名利的 念의 絶棄, 日用 평이 명백한 곳에 있어서의 공리와, 이미 알고 있는 理를 優游 涵泳하도록 희구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陽明學의 유파에 屬하는 劉念台的 학을 신봉하는 草菴의 학과 공리의 근본으로서의 거경을 중시하여 心法에 힘을 기울인 퇴계의 朱子學과의 사이에는 一線을 구획해야 할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퇴계를 존승한 碩水는, 퇴계의 朱子學의 방향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명의 程篁墩의 『心經附註』를 읽도록 草菴에게 권했다.¹⁴⁾ 이 『附註』는 眞西山의 『心經』에 註를 붙인 것이며, 정주 이하의 大儒들이 그 뜻을 잘 나타낸 것을 그 밑에 疏한 것이다. 『心經』 및 『附註』는 「附註 권4」의 말미에 게재된 接文에 말했듯이 마음을 간결히 하며 蕩心하여 異學의 공허가 되는 폐단과 의지를 研鑽하는 데 애쓰고, 俗學에 흘러서 卑汚에 빠지는 것을 구해내는 것이며, 인간 공동생활의 원리를 마음 안에 收藏시켜 활발하게 움직이는 居敬의 공부를 근본으로 하는 학문에 따르게 한 데에 큰 공이 있는 것이며, 이에 따르면 공허한 것도 平實에 돌리고 또한 고명한 곳으로 향하게 할 수 있으리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此書는 朱子學의 尊德性을 切要로 하고, 그것에

13) 退溪先生自省錄, 答南時甫(退溪全集 下, 321~2면).

14) 池田草菴 앞으로 보낸 楠本碩水書簡(幕末維新朱子學者書簡集, 212면)

의해서 그 末學의 口耳之離의 폐단을 구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朱子學은 당연히 陸學에 접근한다. 그러므로 篁墩은 「道一篇」을 저술하여 朱陸同歸를 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년에 퇴계는 篁墩의 인물에 의심이 있음을 인정했고, 또한 篁墩이 「附說」 말미에다 朱陸早異晚同을 논하고 朱陸同歸의 입장을 취한 元의 吳草廬의 논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지만¹⁵⁾ 결국에는,

尊德性以救文義之弊，領篁墩之說也。乃朱子之意固然也。篁墩於此但不當區區於初晚之分耳。若其遵宋子之意贊西山之經，註此於編終欲以抹末學之誤，實亦至當而不可易也。況引朱說而補諸儒發明朱說之條，未嘗一言及於陸氏之學，以爲朱子晚悔而與此合，如道一編之所謂乎，故滉竊以謂，今之學者，當知博約兩至朱子之功，二功相益吾儒之本法。以此讀此經此註，而不以篁墩道一編之謬參亂於其間，則所以爲聖爲賢之功端在於此矣。¹⁶⁾

라고 말하여 여전히 『附註』를 중시하였다. 퇴계는 장년시절에 此書에 접하여 반복 숙독하고 이것으로써 心學의 연원, 心法의 精微를 알 수 있었다고 하여 『心經』 『附註』를 神明 嚴父에 대하듯이 敬信했지만,¹⁷⁾ 이것은 만년에까지 변치 않았다. 문인 김성일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幸西冬(壽請 40년, 61세), 先生居陶山玩樂齋, 鷄明而起必莊誦一遍. 諱德之乃心經附註也.」¹⁸⁾

퇴계도 「平生尊信此書，亦不在四子近思錄之下矣」라 하고, 또한 道의 體用을 구비한 『小學』, 義理의 정미를 해설한 『近思錄』은 모두 필독의 書이지만, 初學 用工의 書로서는 『心經』보다 절요한 것이 없다고

15) 李退溪全集 下, 481면.

16) 心經後論(同 482, 485면).

17) 言行通錄 권2, 類編, 學問제1(李退溪全集 권4, 24면).

18) 同, 170면.

하였다.¹⁹⁾ 그러나 퇴계가 『心經附註』를 尊信하기에 이른 심정은 此書가 의리를 대부분 肚裏(심중)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하고,²⁰⁾ 그것이 道에 이르는 요체임을 통감한 점에 있다. 『言行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先生嘗論，心經附註將義理略從肚裏過處。因云，今人略從肚裏過亦不肯，尤可嘆也。至再三言之，其悶世人進道之難，自不覺其憂形于色。」²¹⁾

閔齋는 퇴계를 존신했지만 『心經附註』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李退溪가 心經을 존중한 것이 일대의 잘못」²²⁾이었다고 말했다 한다. 碩水은 순수한 崎門의 유학자이지만, 이것을 「尊德性之一路」의 것으로 알고 이것을 읽고 이익을 얻은 것이 적지 않다고 하여 草菴에게 此書를 추천하고 있다.²³⁾ 그러나, 이에 대하여 草菴은 심경이라고 한 제목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진 듯 하여

「儒者の 학문은 원래 心術에 기인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사 건건, 心經抔라고 제목을 붙임은,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 사이에 一見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²⁴⁾

라고 말하고 있다. 端山도 퇴계를 존숭했지만, 端山이 퇴계를 논한 것은, 崎門學者며 朱子의 문학에는 精究無比이지만 實工의 면에 있어서는 결핍된 면이 있다는 평이 있는 廣島藩儒, 金子霜山²⁵⁾ 앞으로의 和牘에 一個所 나타나 있을 뿐이다. 즉, 말하기를,

19) 心經後論(退溪全集, 483면).

20) 言行錄 권1, 類編, 學問第1(全書 4, 171면)

21) 言行錄 권2, 類編, 學問제1(全書 4, 34면).

22) 阿部吉雄, 『日本朱子學과 朝鮮』 254면.

23) 池田草菴 앞으로 보낸 楠本碩水書簡(幕末維新朱子學者書簡集, 212면).

24) 同, 264면.

25) 楠本, 端山 앞으로 보낸 吉村秋陽 書簡, 同, 96면.

「아무튼 정주의 學이 계승하는 이 없는 두절된 학문이 된 후, 西土에 이를 承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았는데 도리어 壽靖間에 조선에 있어서의 퇴계이씨가 이 학문 본체를 구비한 모습이 있었고, 本邦에서는 그러한 자로서 崎門 數君子의 發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기타는 寥寥寂寂하게도 들은 바 없으니, 어찌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인가.」²⁶⁾

라고 碩水은 崎門 諸儒의 저서를 柱力 搜索 구입하고 崎門의 垂加神道の 諸書도 다수 소장하였다.²⁷⁾

퇴계의 書에 대해서도 이것을 구입하는 데 힘썼다.

大橋訥菴의 문인이며 朱子學자였던 竝木栗水앞으로 보낸 碩水의 서간에 의하면, 다음 文面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몹시 조선의 朱子學 및 版本을 중시하고 있다.²⁸⁾

「彼國, 一時程朱之學 왕성하여 大儒 배출하였음은 실로 감탄할 따름이요, 아무리해도 我國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서적은 校訂이 稠密華麗하고 요새는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습니다.」²⁹⁾

따라서 퇴계의 서에 대해서도 극력 이것을 입수하려고 하였다. 碩水이 말한 바에 의하면, 젊었을때 平戶에 李退溪文集을 취급하는 자가 있었다. 이것은 春田尙平의 舊藏이었으나, 가난하여 이것을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藩主(松浦心月公)에게 권하여 구입토록 했다. 후에 篠崎小竹 舊藏의 抄本이 나왔으나, 이것은 伯兄인 端山에 구입시킨 것이라고.³⁰⁾

明治 39년(1906) 봄, 퇴계의 언행록 및 연보를 입수하여 읽었다. 그

26) 油印, 幕末維新朱子學者書簡 권1.

27) 碩水餘稿附錄 1(楠本端山碩水全集 312면).

28) 同.

29) 同.

30) 同.

리고 더욱 더 퇴계의 학을 신봉하는 마음이 돈독해져서, 이것을 평하여 「朱子後一人」이라 했다.³¹⁾

碩水 舊藏의 도서목록에 의하면, 李滉注의 『朱子行狀』이 있으며, 『朱子書節要』에 이르러서는, 明曆 2년(1656) 간행본과 黑岩慈庵訓點의 寶永 6년(1707)刊 및 사본 2본이 기재되어 있다. 端山의 집에는 조선 간행의 『李退溪文集』, 『續集』, 『外集과 退溪年譜』, 『退溪行狀』, 『別集』의 사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밖에 佐藤一齊 表書의 『退溪西銘考證講義』가 있었다. 주의해야 할 일은 師傳없이 퇴계학을 篤信한 熊本實學派의 祖, 大塚退野手批本 『朱子書節要』가 전해지고 있는 사실이다. 위 서적이 전부 端山시대에 소장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이것으로써 端山도 또한 퇴계의 책을 읽었으며, 또한 楠門學이 熊本實學派와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지리라.

이제, 碩水의 퇴계학 평가에 대하여 기술하여 보자. 碩水은 조선의 유학에 대해서는 퇴계만이 아니고 수명의 宋子學者의 것도 읽은 모양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문인 岡直養 앞으로 보낸 서간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朝鮮之學，由來宗程朱，而靜退牛栗四賢聞，有四賢要言者。欲一寓目而搜訪未得，李退溪書略具于正翼(端山嗣子)所。李栗谷集，秩頗多顧易不獲也。靜牛二氏得要言則足矣。曩見示鄭圃隱集亦不易獲之書。集中無論學之語，所謂豎說橫說者，可得而知。然人物甚高。蓋麗朝之第一人，可堪欽慕哉。」³²⁾

퇴계에 대해서는 『朱子書節要』를 읽으면 퇴계가 얼마나 열심히 朱子를 배웠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며³³⁾ 『言行錄』, 『年譜』를 읽고서는 몹시 감격한 것으로 보이며,

31) 同.

32) 碩水餘稿 권1, 岡次郎(楠本端山碩水全集, 288면).

33) 碩水遺書 권8, 隨得錄 1(同, 194면).

「讀之愈久而知非元明以下諸儒所及也。」³⁴⁾

라고 말하고 있다. 碩水은 조선 유학사에 있어서의 퇴계의 위치를 논하여,

「朝鮮諸儒，退溪以前折衷於退溪，退溪以後無出於退溪之外者。靜退牛栗四賢竝稱，恐非通論也。」³⁵⁾

라고 말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퇴계를 가지고 「朱子後一人」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퇴계는 宋末元明諸儒의 주된 저서를 읽었으나 明末清初의 성리학에는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碩水은 이들 서적에 정통하고 있었다. 碩水이 明末清初의 諸儒者 중에서 가장 존경한 것은 張楊園이며, 명말청초의 大儒 顧憲成, 高忠憲, 馮少墟, 李二曲, 黃梨洲의 學일지라도 아직 순수하지 않다 하여 양원의 學의 정수를 칭찬하고, 청초의 朱子學의 大儒 陸稼書도 楊園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지만, 碩水은 퇴계를 양원이나 명초의 大儒, 薛文淸, 胡敬齋와 비교하여

「陸稼書不及張楊園，楊園不及退溪，薛胡亦不及也。」³⁶⁾

라고 말하고, 마침내 다음과 같은 退溪景仰의 시를 지었다.

平生最慕退溪風，
學術純然自不同，
珍重一編言行錄，
使人仰鑽感無窮。³⁷⁾

34) 同, 권11, 同, 4(同, 240면)

35) 同, 권8, 同, 1(同, 200면).

36) 同.

37) 碩水餘稿 권3, 丸山重俊在韓國遠寄示退溪言行錄詩江謝之(全集, 305면).

碩水은 그와 함께 朱子 이후의 유일인이라 불리운 퇴계와 闇齋의 학을 비교하여, 또한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논의를 제창하였다.

「闇齋則能究朱子之學, 退溪則能學朱子之道. 皆非元明諸儒所及也.」³⁸⁾

碩水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闇齋를 가지고 능히 朱子의 학을 구명한 자라고 하고, 퇴계를 가지고 능히 朱子의 도를 배운다 라고 말했을까?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뒤에 私見을 말해보고자 한다.

楠門이 퇴계를 존신한 것은 퇴계와 마찬가지로 精切한 體認의 學에 따른 때문이지만, 첫째로 楠門이 퇴계를 존신한 崎門의 정통과 儒者였다 는 것, 둘째로 전술한 바와 같이 師傳없이 능히 퇴계학을 수용하고 그것에 의하여 자신의 體認의 학을 수립하고 熊本の 실학을 세운 大塚退野一派에 직접 간접으로 접촉이 있었던 것, 이 두 가지 이유에 의한 것이리라. 직접 퇴계학을 수용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수행한 것은 熊本實學派이지만, 楠門도 여기서 말했듯이 崎門에 따르고 또한 熊本實學派와 접촉이 있었던 관계상, 퇴계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전술한 대로다.

九州의 儒學界에서 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熊本實學派와 楠門의 崎門派이지만, 그 밖에 崎門에서 나온 儒者 중에 퇴계를 존신한 2명의 儒者, 즉 黑岩慈菴과 古賀精리가 있다. 이 두사람과 퇴계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阿部吉雄씨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³⁹⁾ 慈菴은 上佐人이며 上佐의 野中兼山과 山崎闇齋에 관해서 배우고, 학업이 성취되어 具原益軒과 마찬가지로 筑前黑田藩에게 봉사한 儒者이지만, 퇴계를 존신하고 『朱子書節要』에 발문을 붙여 이것을 교정하여 訓點을 달아서 출판했다. 精리는 崎門의 淺見綱齋派에 속하는 西依成齋에게 배우고 九

38) 碩水遺書 권10, 隨得錄3(全集, 228면).

39) 『日本朱子學과 朝鮮』 436~438면, 443~446면.

州 佐賀의 儒官으로부터 昌平校의 교수가 된 儒者이지만, 역시 퇴계를 존신하고, 崎門의 佐藤直方派에 속하는 村士玉水가 편집한 李退溪書抄에 발문을 쓴 儒者이다.

伊藤仁齋, 山崎闇齋의 시절, 九州에는 西海의 二巨儒라고 불리운 安東省菴과 具原益軒이 있었다. 省菴은 九州 筑後 柳川藩의 儒官이며 일찍부터 성현의 도에 뜻을 두고, 京都로 나와 藤原惺窩의 문인, 松永尺五에 師事하고 歸藩後에 藩候의 侍講이 되었다. 明儒, 朱舜水가 長崎에 왔을 때, 그의 학덕을 흠모하여 사제의 예를 고집했으나 舜水の 流落 貧困을 보고 자기 봉록의 반을 갈라서 증여했다. 程朱學을 신봉하여 『學菴通辨』을 간행하고 『困知記』를 교정하였다. 省菴은 퇴계와는 달리 『困知記』의 朱子學에 힘입은 점이 많으며, 理氣一體論을 제창하였다. 省菴이 퇴계의 책을 보았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퇴계의 저서에 접한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益軒은 筑前 福岡藩에 봉사한 儒者이며, 젊었을 때 京都로 나와 松永尺五 또는 그의 문인 木下順菴과 交友하고, 또한 闇齋의 講席에도 출석한 적이 있다. 그러나 闇齋의 학에는 契合하지 못하고 이후 闇齋와의 교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서히 그의 학에 비판을 가했다. 그것은 낙천적인 시세관을 품고 또한 35세까지에 이미 넓은 영역에 이르는 중국, 일본의 실학서 60부를 독파하리만큼, 일찍부터 이상할 정도로 실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朱子에 관해서는 神明에 대하리만큼 존경은 하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朱子의 唯理論的 理想主義에 대해서는 大疑를 품고, 오히려 羅整菴의 理氣一元論에 따르는 益軒이었으므로, 조금도 朱子의 설에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을 신조로 하고 精絶切至한 體認을 宗旨로 하는 闇齋의 朱子學에는 따를 수 없었고, 또한 和樂溫雅한 기상의 益軒으로서의 自說에 따르지 않는 자는 아무리 高弟일지라도 그를 파문할 만큼의 剛毅한 기상인 闇齋와는 相容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益軒은 博學洽聞한 점에서 본다면 德川시대에 있어서는 우수한 儒者

이며, 일본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위대한 공헌이 있었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으나, 그것도 요컨대 朱子學에 있어서의 萬物一體思想, 특히 全體大用思想을 수용해서 이것을 별도로 전개시켰기 때문이며 이런 점에서는 괄목할 만한 大儒였다. 이 益軒이 젊었을 때부터 퇴계 및 퇴계학과 관계가 있는 책을 읽고 있었던 것에 관해서는 한 번쯤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益軒의 『玩古目錄』에 의하면 35세까지 읽은 서적 중에서 퇴계가 존신했던 『心經附註』와 『延平答問』의 이름이 보이며, 『心經附註』의 서명 밑에는 「數遍」이라고 써 있으므로, 益軒도 젊은 시절 이 책의 心法에 마음이 끌린 듯싶다. 이 책에 관한 관심의 동기는 다소 퇴계와는 달랐던 것 같다. 그 까닭은, 퇴계는 이것을 朱子學의 심법의 요체를 해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益軒의 경우에는 陸王學의 視點에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益軒이 朱子學로 돈 것은 36세때 『學菴通辨』을 읽고 서부터이기 때문이다.

『玩古目錄』에 의하면, 35세까지 讀了한 서적에 『象山集要』, 『傳習錄』, 『王陽明全集』, 『王龍溪全集』, 『王陽明則言』의 이름이 보이며, 『傳習錄』아래에는 「十二遍見」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시절에 益軒은 陸王學에 마음을 두었던 것은 명백하다.⁴⁰⁾ 同目錄에 의하면 益軒은 35세까지에 퇴계의 『天命圖說』, 『朱子行狀註』, 36세 때에 『自省錄』, 『朱子書節要』를 읽었으며, 39세 때에는 『西銘講義』, 46세 때에는 『李晦齋集』도 讀了하였다. 더욱이 『私書目錄』에는 퇴계의 『聖學十圖』라든지 權陽村의 『入學圖說』이 있으므로⁴¹⁾ 이것도 읽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玩古目錄』에는 朝鮮姜景醇 雲松著로서 『衿陽雜錄』의 이름이 보이며, 金堉이 펴낸 『文公家禮』의 이름도 보인다. 井上忠씨의 『具原益軒』에 의하면, 더구나 益軒은 天和 2년(1682) 黑田藩의 儒臣으로서 藍島에서 朝鮮 사신을 영접하고 응대했지

40) 九州資料刊行會發行, 九州資料叢書, 益軒資料 5, 書簡集 下, 竹田春庵 앞으로 보낸 具原益軒書簡.

41) 益軒資料7, 補遺.

만, 그 때 李林學士 鵬溟에게 李退溪, 李晦齋, 鄭夢周, 盧守愼, 王仁 등의 사적, 저술에 관한 것, 학교라든지 과거에 관한 것 등을 尋問한 것을 보아도, 益軒이 조선의 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益軒은 퇴계의 책을 잘 읽고 있었으나 퇴계의 학은 闇齋의 학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朱子學을 수호하는 처지에 있으며, 더욱이 精切한 體認을 宗旨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益軒의 학풍에는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의 저서에는 퇴계를 논급한 곳이 없다.

碩水의 형 端山은, 江戸의 佐藤一齋의 문하에서 배운 이래, 심성의 학에 종사하고, 平戶에 돌아온 후부터 돈독하게 朱子學의 體認에 힘을 기울였다. 때마침 동생인 碩水이 江戸遊學의 歸途에 浪華의 尼崎修齋를 방문하여 崎門學을 平戶에 도입한 이래 함께 崎門學을 宗旨로 하고, 碩水이 江戸유학 이전에 방문한 東肥 長洲의 崎門學者인 月田蒙齋를 통해서 더욱 더 斯學에 精勵하게 되었다. 端山이 崎門學을 존신하게 된 것은 실은 蒙齋에게서 힘입은 바가 적지 않았다. 端山 뿐만 아니고 동생들도 모두 蒙齋의 가르침을 받았다. 蒙齋는 道體의 體認에 가장 힘을 기울인 학자며, 體가 서고 用이 행하여지는 곳에 體用一源, 顯微無間의 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持敬涵養을 學의 요체로, 靜坐를 持敬의 근본으로 삼아서 深切한 정좌를 공부의 대상으로 했다.

蒙齋의 학은 기문의 宗傳에 의한다고는 하지만, 그 精敬體認의 공부는 실로 百鍊 千磨를 거친 것이었으나, 蒙齋가 퇴계의 학을 수용하여 특히 道體體認에 힘을 쓴 退野一派의 熊本實學派의 세력이 큰 肥後 熊本の 儒者였다는 것도 蒙齋의 體認의 학과 무관하지는 않았으리라. 碩水은 退野의 학을 평하여, 博大 精微한 점에서는 闇齋에 못 미치나, 自得은 闇齋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다.⁴²⁾ 闇齋는 정주학의 책을 널리 세상에 보급시킨 점에서는 커다란 공적이 있다. 그것은 程朱 등의 書의 抄略, 校註書를 다수, 編次, 表章한 것으로도 명백하며, 이 점에서는

42) 碩水遺書 권11, 隨得錄4(全集, 330면).

퇴계보다도 공적이 있으리라. 그러나 뒤에 하는 바와 같이 精微한 心術에 있어서는 퇴계나 退野에 일보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蒙齋는 千手謙齋에게서 배웠고, 謙齋는 부친인 廉齋의 학을 이어 받았고, 廉齋는 宇井默齋의 가르침을 이었으며, 默齋는 久米訂齋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訂齋는 崎門三傑의 한 사람인 三宅尙齋의 문하에서 배웠다. 그러므로 蒙齋는 尙齋派의 正系를 전한 崎門學者다. 그의 스승 謙齋는 蒙齋의 학을 보고 崎門의 정통이 여기에 있다 하였고 만년의 저서 『中庸講義』와 『博柔儒海(道學淵源錄의 原本)』와 父 廉齋의 저서 『自求錄』을 수여하여 相傳의 표징으로 삼았다. 碩水은 젊었을 때 蒙齋를 방문했는데 그 때 그의 학을 인정받아 『蒙齋隨筆記』를 썼으나, 碩水은 후에 『隨筆』 『詩集』을 간행했다. 端山에게는 후에 기문의 相傳이 여기에 있다고 하여 『中庸講義』를 빼고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책을 증명했다. 이로써 楠門이 蒙齋으로부터 얼마나 촉망되었는가를 상상할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해서 楠門은 三宅尙齋派의 崎門學을 전했으므로 崎門 중에서는 尙齋를 가장 존신했고, 명분상으로는 淺見綱齋의 학을 따랐으나, 直方派의 학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이었다.⁴³⁾

일반적으로 熊本實學派는 崎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생각컨대, 退野의 學은 自得을 존중하고 本源의 會悟를 중시했다. 그러므로 「學을 해서 일개 半個의 이익은 있을지라도 大益이 있기는 어렵다. 一事 一事

43) 端山の 「尙齋三宅先生像贊」에 말하기를, 「超脫訓詁, 蕩掃記聞, 噫皇圍, 其學始新(端山遺書 권4, 端山碩水全集 53면)이라고. 또한 端山은 碩水 앞으로 보낸 서간 중에서 「此學은 尙齋先生 뜻대로 점차 필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幕末維新朱子學者書簡集, 57면)라고 말한다. 碩水는, 闇齋 후 崎門派는 편협 고루하게 되었으므로, 闇齋의 宗旨가 不明하게 되어 문인도 각각 門戶를 세운 까닭에, 그 학과도 數派로 갈라지고 또한 諸儒는 自說을 주장하여 先儒의 오류를 한쪽으로 논단하는 풍조가 생겼다. 그러므로 門流로 기울지 않고, 闇齋에게 따르도록 掛念치 않으면 안 되나, 三宅尙齋先生만은 知行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공자에 있어서의 증거와 같이 잘 師傳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碩水餘稿, 권1, 送泥谷子敬序, 全集, 289면). 楠門은 直方派에게는 비판적이었으나 정좌를 중시하는 점에서는 同調的이었다. 並木栗水 앞으로 보낸 楠本碩水書簡(幕末維新朱子學者書簡集, 129, 132면).

知를 이룰지라도 이와 같이 축적하여 본원에 이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⁴⁴⁾라고 말하고, 闇齋의 학에는 본원의 體悟가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山崎의 學은 致知하여 一事를 알면 一事를 행하는 따위의 의미가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⁴⁵⁾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비판했다. 退野의 自得 體悟의 학은 문인 平野深淵과 森省齋에게 이어졌으나, 深淵에 있어서는 事理의 변통성이 설명되고, 省齋에 이르러서 退野의 學이 精緻해졌다. 退野의 학은 熊本 출신의 橫井小楠, 元田東野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특히 小楠은 退野의 학을 經世에 활용하여 마침내 洋學攝取의 태도로 나오게 되었다.

碩水은 때때로 小楠을 방문하고 그의 學才에 감동되어 처음에는 「以爲有用之學, 有爲之才, 豪傑之士, 而非俗儒也」⁴⁶⁾라고 말하여 이것을 칭찬했으나 小楠은 후에 洋學 쪽으로 흘러 갔으므로 功利의 학에 빠졌다 하여 여기에 비판을 가했다.⁴⁷⁾ 小楠도 闇齋의 학을 非라 하여 「山崎學 講義를 읽는 따위의 心術工夫는 없고 바깥으로 달리는 大病이 심하다」라고 말했다 한다.⁴⁸⁾ 東野는 退野, 深淵에 私淑하고, 「嗚呼非林非伊又非崎, 吾服東肥兩夫子」⁴⁹⁾라고 말하고 闇齋의 敬義學, 伊藤仁齋, 東涯의 古義學, 林門의 朱子學에도 비판적이었다. 이상 退野 이하 熊本實學派의 諸儒를 언급했지만, 碩水이 가장 존신한 것은 退野과 省齋였던 것 같으니,

「大塚退野不由師傅而深得聖學之要. 眞豪傑之士也. 博大精微不及闇齋, 然其所自得殆有過焉. 門人森省齋學識極高亦非當時諸儒所及也.»⁵⁰⁾

44) 楠本正繼先生 「中國哲學研究」 651면 引退野語餘.

45) 同.

46) 碩水餘稿, 附錄1(全集, 311면).

47) 同. 또한 碩水는 草菴 앞으로 보낸 서간 가운데서, 「대체로 橫井이라는 자는 밖으로는 洛閩의 學을 제창하면서도, 안으로는 功利의 마음을 품는 것 같이 보입니다」(幕末維新朱子學者書簡集, 221면)라고 말한다.

48) 遺稿篇, 與岡田準介書(『中國哲學研究』 664면引).

49) 肥後先哲偉蹟권1, 東肥著講筵餘吟.

라고 말했다. 이것으로써 楠門學과 熊本實學派와의 관계를 推察할 수 있을 것이다. 楠門學과 退野學을 비교하여 이것을 일언으로 나타내면, 마찬가지로 體認의 朱子學을 주종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楠門의 學이 體認의 면에서 한층 더 精切深潛하였다 할 수 있으리라.

楠門은 전술한 바와 같이 崎門學, 그 가운데서도 尙齋의 학을 중시하고, 靜敬을 근본으로 하는 體認의 朱子學을 종지로 하나, 형인 端山과 동생인 碩水와는 학문에 다소의 異同이 있다. 그것은 인물氣象의 相異에서 오는 것이지만, 端山은 덕에 뛰어났고 碩水는 학에 뛰어났으며, 體認의 深潛縝密한 점에서는 端山이 우수하며, 博學辨識인 점에서는 碩水 쪽에 한걸음의 長이 있다. 三島中洲는 『端山유서』를 일독하고,

「尊崇宋學極精研, 一卷遺書萬世傳,
西海二程名不負, 伯如明道叔伊川」.

이라는 시를 지었다. 참으로 端山은 程明道를, 碩水는 程伊川을 닮았다. 형제의 학풍은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朱子學의 體認의 면을 精微하게 한 점에 있어서 幕府末期維新의 사상계에 공헌이 있었던 것은 인정해야만 한다. 여기서 楠門學과 퇴계학의 異同에 대해서 약간 私見을 말해 보고자 한다. 다만 그것의 상세한 것에 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장 근간이라고 여겨지는 점에 한정하고자 한다.

조선의 朱子學은 과거의 일례를 들어 보아도 추찰되다시피, 중국적인 文教 정책 아래 국교로 되었고, 또한 異學(陸王學)은 일체 배제되었으니, 퇴계의 朱子學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생성되었던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楠門의 朱子學은, 異學(新陽明學)이 왕성한 가운데서 건립되

50) 碩水遺書 권11(全集, 230면).

碩水는 또한 말하기를 「退野門人有森省齋余 嘗得其書 讀書之識見極高氣象亦高 又有平野深淵者 篤信程易 終身用力於此 著有程易夜話等書」라고. (碩水遺書 권 8, 隨得錄 1, 全集 202면)

었다. 또한 퇴계의 朱子學은, 오로지 訓詁 記誦의 朱子學 비판 위에 형성되었으나, 楠門의 朱子學은 이와 같은 朱子學은 말할것 없고, 당시의 異學의 超克(그 異學은 대체로 朱子學을 거쳐서 형성된 新陸王學이었지만), 그 폐단을 간취하여 이것을 극복해 나감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다. 단지 주의해야 할 것은, 異學이라 할지라도 門戶의 견해를 세워서 이것과 격렬하게 싸운 것은 아니고, 그 徒輩와 서로 친교를 맺고 자신의 학덕의 연마에 노력하고, 또한 함께 심성의 학을 講明하여 세상의 風教를 고치고 국가의 안녕을 기약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일본의 전통적인 풍조며, 이 점이 조선의 朱子學이 파벌의 항쟁에 始終한 것과는 다소 취지를 달리한다. 퇴계의 朱子學은 師傅이 없이 體認의 朱子學을 형성한 것은 偉業이라 할 수 있겠지만, 楠門의 朱子學에서는 전통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퇴계학과 楠門學의 성립의 배경은 이상 말한 것으로써 그것의 概要가 명백해진 것이라 여겨지나, 이것이 또한 靜敬을 근본으로 하는 兩者의 體認의 학에 미묘한 차이를 생기게 하는 一因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퇴계는 용케도 朱子의 意를 체득하고 切至한 연구의 누적에 의하여 최후에 심고원대한 道體에 도달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감히 道體의 解悟의 요체를 들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此理洋洋於日用者，只在作止語默之間，彝倫應接之際，平實明白，細微曲折，無時無處無不然。顯在目前而妙入無朕。初學全此而遽從事於高深遠大，欲徑捷而得之，此子貢所不能而吾輩能之哉。」⁵¹⁾

라고. 따라서 퇴계가 次序에 따르고, 急迫 助長의 병에 빠져들지 않게 훈계한 것은 말할 나위 없다.⁵²⁾ 퇴계는 특히 毀譽榮辱에 구애되어 異論을 세워서 衆人이 이상히 여기는 것을 기피했다. 學이란 나의 性을 다하고 나의 心을 다하고 나의 心體를 세우는 것 이외의 것이 아니었

51) 李子粹語 권1, 爲學(全書5, 225면).

52) 同, 239면.

다. 퇴계가 자주 「爲己之學」의 요체를 切論하고 「爲人之學」을 힘껏 배척하는 소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른바 下學을 요긴한 것이라고 하고, 上達을 안이하게 말함을 거부했지만,

「下學上達固是常序, 然學者習久無得則易至中廢. 不如指示本原也.」⁵³⁾

라고 말했듯이, 때가 와서 本原을 指示하여 마음의 주체성 확립의 요체를 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퇴계학의 본령은 오히려 전자에 있어서의 慤實함과 眞切함에 있었다고 말해도 좋다. 그것에 대해서 楠門學의 경우는 오히려 透悟에 특색이 있으리라. 특히 端山學의 투철함은 退野, 蒙齋의 體悟를 능가하는 것이며, 참으로 精絶하였다. 이 점에서는 幕府 말기 維新의 儒者 중에서는 이에 따르는 자가 없다. 그러나 본원의 體悟를 敎說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공동생활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면 안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것은 端山の 행동 그 자체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楠門學에 있어서의 智藏에 관한 所說은 그 本原體悟의 精切함을 명증하는 것이리라. 智藏說은 朱子가 이것을 창설하고, 闇齋가 이것을 지적하고, 崎門에 의해서 논의되었지만, 楠門에 이르러서 한층 더 발전을 보였다.

端山에 의하면 智는 仁義禮智 四德의 體, 따라서 四德이 藏入하는 곳이며 그것의 發源이라고.⁵⁴⁾ 이러한 결과로 智는 理의 妙藏하는 곳이라고 생각되었으며, 따라서 이것을 알면, 궁리도 외물을 쫓는 공부가 아니며 朱子가 말하는 「豁然貫通」도 신비한 悟入이 아닌 것이 명백해진다고 생각되었다.⁵⁵⁾ 智藏에 관해서는 碩水도 이것을 切論하고 있다. 본원의 體會를 요긴한 것이라 한 端山은 正좌를 가지고 심성존양의 근본으로 하여, 이것이 朱子가 말하는 「本領一般之工夫」라고 했지만, 端山의 本領一般의 공부는, 周子 이하 楊龜山, 羅豫章, 李延平의 主靜說은 물론

53) 言行錄 권2, 類編, 學問第1(全書4, 31면)

54) 端山遺書 권6, 學習錄 下(全集 91면)

55) 同 85면.

이고, 실로 王門의 聶雙江, 특히 羅念菴의 歸寂說을 거쳐서 朱子에 거슬러 올라간 것이었다. 端山은 말하기를,

「本領已明, 推而應世務, 大半迎刃了解. 其餘每一件一事稍問去, 則亦不費力.」⁵⁶⁾

라고. 體悟의 深潛縝密이라는 점에서는, 碩水는 端山에게 한발짝 양보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분석하는데 뛰어난 점에서는 퇴계와 통하는 데가 있다. 더욱이 퇴계는 校註를 엄히 하고, 考據에 힘을 기울였으나, 楠門에게는, 그것이 없다. 그것은 그들의 講友가 한결같이 體認의 학을 강조하고, 그 때문에 논설을 일삼기보다는 實悟 實修에 精勵하도록 작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중에는 저술의 가치에 대하여 극히 소극적인 자가 나온 듯한 풍조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다.⁵⁷⁾

마지막에 闇齋와 퇴계의 體認의 학에 있어서의 상이점을 찾아내고, 碩水가 무엇 때문에 「闇齋則能究朱子之學, 退溪則能學朱子之道」라고 말했던가, 그 이유에 관해서 私見을 말해 보고자 한다. 闇齋學과 退溪學의 상이점에 관해서는 이미 阿部吉雄씨가 大處 高處로부터 이것을 말하고 있으므로,⁵⁸⁾ 여기서는 양자의 體認의 學의 상이에 한하여 일별을 가해보고자 한다. 闇齋, 退溪 두사람 모두 朱子의 설에 대해서는 잘도 진위를 분별하고 定, 未定の 분별을 명백히 하여 그 진정한 것을 들고, 이것에 信從하려는 태도를 취했고, 또한 그 요령을 節餘하고 要書를 지적하여 이것에 校註를 가해서 이것을 세상에 表章한 것은 주지하는 바

56) 同 91면.

57) 讀我書樓遺稿, 附存, 請錄6 丁, 秋陽은 草菴 앞으로 보낸 서간에서

「저술에 관해서 말하면 부득이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한개의 量見書를 써도 좋지만, 어찌되어도 좋을 것을 長長 件件 말하는 것은 쓸데없이 名利에만 급급하는 사람의 소치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며, 설혹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표시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고, 결국 저술은 적은 편이 좋을 것으로 평생 명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幕末維新陽明學者書簡集, 364면).

58) 『日本朱子學과 朝鮮』 第2節, 「闇齋 退溪의 學風의 異同」참조.

와 같지만, 그것도 단순히 朱子의 書에 한하지 않고, 그것에 관련되는 중요한 心性의 書에도 미치고 있다.

要領의 節餘라는 점에서는 퇴계보다도 闇齋쪽이 한층 더 많은 心性書에 이르고 있으나, 朱子學의 발명이라는 점에서는 闇齋는 퇴계에게 한 걸음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퇴계의 『聖學十圖』를 보기만 하면 명백해지리라. 闇齋는 朱子의 眞正의 說을 듣고, 이것에 따랐지만, 감히 자기가 발명한 곳을 顯示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태도를 훈계했다. 闇齋는 朱子의 저작의 表章에 가장 정력을 쏟고, 朱子學의 神髓라 여겨지는 것을 朱子의 문집이나 어류 중에서 抄出하고, 그 가운데는 간단하긴 하지만 校註를 덧붙인 것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개 朱子의 說을 중심으로 朱子의 주지를 얻었다고 여겨지는 후학의 所說을 그것에 달아서 朱子의 저작을 해명한다는 형식으로 이것을 편집하고 있는 점에 있다. 이것은 朱子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 저작에 自註를 붙이고 傳을 달게 하는 방법이다. 林鶯峰의 말을 빌린다면 「文公(朱子)의 말(言)을 가지고 문공의 말을 연역한다」라고 말하는 것 이외의 것이 아니다.⁵⁹⁾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北溪字義詳講」의 저자 陳北溪는 朱子學의 개념의 해설은 師說에 근거를 두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역시 私見의 개입을 면하지는 못하고 있으리라.⁶⁰⁾ 闇齋의 이와 같은 방법은, 朱子로 하여금 墓中에서 회생시켜, 朱子 자신으로 하여금 면전에서 自說에 관해서 講說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闇齋는 실은 朱子의 강설의 名助産婦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공자는 옛 성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여 만들지 않고 믿어서 옛것을 좋아한다」⁶¹⁾라고 말했다. 闇齋의 朱說에 관한 태도는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며, 만약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狂者不韙之罪」라 하였다.⁶²⁾ 『山崎先生語錄』

59) 玉山講義 附錄 跋.

60) 同.

61) 近思錄 序.

62) 垂加草 권3(闇齋全集 上, 15면)

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것이 기술되어 있다.

「선생은 항상 발명한다는 자와 만나면, 그것 滋味있다고 말하고 何書에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그 사람이 이것은 내가 발명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 그와 같이 발명같은 것을 하지 말라. 그대가 滋味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것을, 성현의 書에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闇齋의 朱子學이 深切한 존양을 주로 한 體認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다음에 게재하는 闇齋의 『近思錄序』 중의 문구에 의하여 이것을 알 수 있다.

「夫學之道在致知力行之二，而存養則貫其二者也。漢唐之間非無知者也。非無行者也。但未曾聞存養之道，則其所知之分域，所行之氣象，終非聖人之徒矣。」

存養은 致知와 力行之 근거라고 말하는 것이 闇齋의 所說이지만, 闇齋의 경우는 오히려 역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지행을 꿰뚫는 敬의 존양을 敎說해도, 그것이 오로지 마음의 각성에 그친다고 하면 佛老의 허무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해서 「敬身」을 說했다. 闇齋의 시에,

蜀魄攪眠聲亦頻，枕頭思得古之人，
齊家治國平天下，道在明倫本敬身⁶³⁾

이라 한 것이 있다. 또한 易의 「敬義內外」의 해석에 있어서도, 內를 心, 外를 身이라고 한 문인의 說을 물리치고 內를 身, 外를 국가천하라 하여 설사 內를 心이라 說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부득이한 論이며 內를 心, 外를 또는 事라 하면, 易의 이른바 「直內」가 把握案排를 면치

63) 寫本，山崎先生批桑名松雲書。

못하며, 결국에는 이단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했다. 身을 敬한다고 해도 平淺에 떨어지면 下學에 머물고 上達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靜坐 存心의 요체를 교설하고, 당시의 유자가 主情을 배운다고 하면서 정좌에 힘을 쏟지 않고, 이것을 이단이라 함을 非라 하여, 이것을 우려해야 할 일이라 했다.⁶⁴⁾ 그러나 「身」이라고 해도 內에 心을 藏하고 있으므로, 敬身도 心의 내면적 공부를 망각하는 것이 아닌 지도 모르겠으나, 闇齋의 경우에는 역시 行, 특히 도의적 실천에 중점이 놓여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퇴계의 경우는 심의 내면적 공부에 힘을 기울인 감이 있다. 퇴계가 『心經附註』를 독실하게 존신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앞에 게재한

「先生嘗論，心經附註將義理略從肚裏過處。因云，今人略從肚裏過亦不肯，尤可嘆也。」⁶⁵⁾

라는 어구 및 또한 「不本諸本心而但外講儀節者，誠無異於扮戲子」⁶⁶⁾라는 어구는 퇴계의 心法要視를 나타낸 것이라 해도 좋다. 심법을 중시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리 예절의 실천을 방해하지 않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第一須先將世間窮通得失榮辱一切置之道外，不以累於靈臺。既辦得此心，則所患已五七分休歇矣。」⁶⁷⁾

라는 어구도 퇴계의 심법을 아는 경우, 주의를 요한다. 이것은 퇴계의 심법이 얼마나 實事に 입각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이리라. 또한 퇴계가 얼마나 심법을 중시했던가는 『聖學十圖』 속에 心術에 관계되는 도면이 5매나 있는 것으로 보아도 추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64) 垂加草 권11, 跋三子傳心錄後(闇齋全集, 上, 87면)

65) 言行錄 권2, 類編, 學問第1(全集4, 34면)

66) 李子粹語 권4(全書5, 444면)

67) 自省錄(全集 下, 32면)

같이 심법을 중시하고 마음의 주체성을 세우는 공부를 요긴한 것이라 했다 해도, 세계를 향해서 활동하기를 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心の 內奧로부터의 요구에 기초를 두기를 희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퇴계가 「思」를 중시하여 事理의 內外融釋, 그것의 자득을 요긴한 것이라 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존양의 공부는 思를 통해서만 본원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는 「人心道心圖」의 개정이 충분히 정당 정밀한 곳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躬行 心得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했다.⁶⁸⁾ 퇴계의 「爲己」의 학은 참으로 愼密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퇴계는 말하기를, 「凡百當以愼密二字爲第一義」라고. 퇴계가 朱子의 도를 배우는 태도는 실로 眞切 愼密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퇴계가 朱子學을 발명한 곳도 적지 않다. 유명한 四七論은 그것이 朱子의 설과 합치하느냐 않느냐보다도 옹케도 老佛의 허무와 세속의 공리를 초극한 朱子의 이상주의의 정신을 체득한 퇴계의 이상주의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 생각이 미친다면, 퇴계가 얼마나 잘 朱子의 도를 배웠던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김 소 암 譯)

68) 退溪書抄 권6, 趙士敬問答(全集 下, 125면)